

2023년도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 독일/체코 -
결과보고서



전주시의회

목 차

I. 출장 개요	1
1. 출장 목적 및 추진 방향	3
2. 출장 개요	4
II. 사전 자료조사 및 학습	7
1. 국가 일반현황	9
2. 대상 국가 복지제도 학습	16
3. 기대효과	21
III. 출장 내용	25
1. 연구과제별 주요 방문기관 연수 내용	27
IV. 정책적 시사점	59
1. 푸드마켓 확대 및 자조능력 향상	61
2.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급	66
3. 지역사회 중심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확대	72
4.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78
V. 개별 연수보고서	83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및 추진 방향
2. 출장 개요

I .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및 추진 방향

□ 목적

- 유럽의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정책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돌봄복지 방안 연구

□ 추진방향

- 전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8,520명(통계청 ‘23.4월말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16.8%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치매유병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노인요양, 건강보장, 치매정책 등 노인건강과 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 정책 필요성이 부각됨.
- 이에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별 노인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기반 구축을 위해, 유럽의 선진 노인돌봄 현장 견학을 통한 관련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및 전주시의 노인 돌봄서비스 방향을 탐색하고 발굴하고자 함.
- 더불어 지난 2차례의 토론회(‘22.11월, ‘23년.4월)를 통해 장애인 및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한 독일 사례에 대하여 토론하고, 전주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음.
- 이를 계기로 독일 뒤르템베르크 디아코니아 사회복지재단의 초청을 받음에 따라, 독일 현지의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돌봄 시설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독일의 선진 복지국가 우수사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복지시책을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출장 개요

□ 일반 개요

- (대상국가) 독일/체코
- (출장기간) 2023. 7. 10.(월) ~ 7. 18.(화)
- (출장자) 18명(의원 5, 의회사무국 2, 집행부 9, 민간 2)
 - 대표 의원 : 복지환경위원장 이남숙 의원
 - 복지환경위원회 : 이병하 부의장, 최지은·채영병 의원
 - 행정위원회 : 이보순 의원
 - 의회사무국 :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고한영 주무관
입법정책2팀 김찬희 정책지원관
 - 전주 시청 : 전주시 보건소 김신선 소장,
치매안심과 박진현 과장,
치매안심지원팀 양찬임 팀장,
이세미 주무관
아동복지과 김현옥 과장
드림스타트팀 최연희 팀장
아동보육팀 유지연 주무관
아동보호팀 강윤희 주무관
장애인자립지원팀 김윤진 팀장
 - 민간 시설 : 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혜경 국장
김시내 과장

□ 출장일정 및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1일차 (7.10)	인천, 프랑크푸르트	인천공항 집결 및 출국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2일차 (7.11)	프랑크푸르트 (독일)	Schwalbach Tafel(무료식품공급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조적 성격의 식료품 지원 기관 Stifung Waisenhaus(프랑크푸르트 고아원 재단) 프랑크푸르트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 및 자립지원
3일차 (7.12)	슈투트가르트 (독일)	Stadt Mission(기독교 노인 요양 기관) 디아코니아(기독교 복지 재단) 산하 노인 요양 기관
4일차 (7.13)	슈투트가르트 (독일)	Diakoniae Warttemberg(디아코니아 뒤르템베르크 본부) 디아코니아의 복지정책 이해 및 활용사례 발굴 Evangelische Gesellschaft Stuttgart e.v. (디아코니아 산하 공익단체) 지역사회에서의 민간 복지재단의 역할 및 필요성 Kinder Und Jugendhilfe (디아코니아 산하 아동·청소년 기관) 슈투트가르트 아동·청소년 문제행동 개선 및 자립지원
5일차 (7.14)	프라하 (체코)	Domov Pro Seniory Chodov(코도브 요양원) 체코 노인돌봄 서비스 기관
6일차 (7.15)		(휴일에 따른 공식일정 불가)
7일차 (7.16)		
8일차 (7.17)	프랑크푸르트 (독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및 출국
9일차 (7.18)	인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Ⅱ. 사전 자료조사 및 학습

- 1. 국가 일반현황**
- 2. 대상국가 복지제도 학습**
- 3. 기대효과**

Ⅱ. 사전 자료조사 및 학습

1. 국가 일반현황¹⁾

1. 독일



□ 일반현황

- 수도 : 베를린
- 면적 : 35만7천km²
- 인구 : 약 80,722천명(세계19위)
- 출산율 : 1.57명(2022년 기준)
 - ※ 중위연령이 47.1세로 세계2위 수준(저출산 고령화 국가)
- 행정구역 : 연방제(16개주- 주 10, 자유주 3, 도시주 3)
- 국가GDP : 4조 2,565억\$(세계4위) / 1인GDP : 51,104\$(세계19위)

1) 출처 : 외교부

□ 개요

- 정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고, 영어로는 Germany이며, 북쪽으로 북해·발트해에 면하고 덴마크와 접하며, 동쪽으로 폴란드·체코, 남쪽으로 오스트리아·스위스, 서쪽으로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와 접한다.
- 국경선 안쪽으로 알프스산맥, 라인강, 다뉴브강, 슈바르츠발트산맥이 자리하고 행정구역은 16개 주로 되어 있으며,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창설국이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 언어

- 독일어(獨逸語, Deutsche Sprache, Deutsch)는 게르만어파 서게르만어군에 속하는 언어로, 세계의 주요언어 중 하나로 여겨지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공용어로 사용된다.
- 독일어는 학술어로서 그 중요성이 크며 세계 출판업계에서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며, 모국어로서 사용자수는 약 1억 2천만 여명으로 세계 10위 수준이며, 유럽 연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임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제2언어로 배우는 사용자의 수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음으로 많다.

□ 종교

-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 정교(政敎)분리가 이루어져 국교는 없으나, 역사적 전통을 존중하여 국가는 교회의 재산권과 신도에 대한 종교세 부과를 인정하며 교회활동의 유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 가톨릭과 개신교는 각각 30.8%, 26.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북부·북동부(구동독)지역은 개신교, 남부·서부지역은 가톨릭이 강세로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개신교가 우월하고, 농촌지역에서는 가톨릭이 우세한 점이 특징이다.
- 다른 유럽나라에서는 주로 가톨릭이 우세한 것과 달리 개신교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특성은 독일의 성직자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탄생한 역사적 맥락에 기인한다.
- 1930년대 제3제국 시기에는 53만명의 유대교도가 있었으나 나치의 대학살로 현재는 3만 7500여명에 불과하며, 주로 베를린·프랑크푸르트에 분포하고 있으며, 기타 종교로는 그리스정교와 이슬람교(5.5%)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독일 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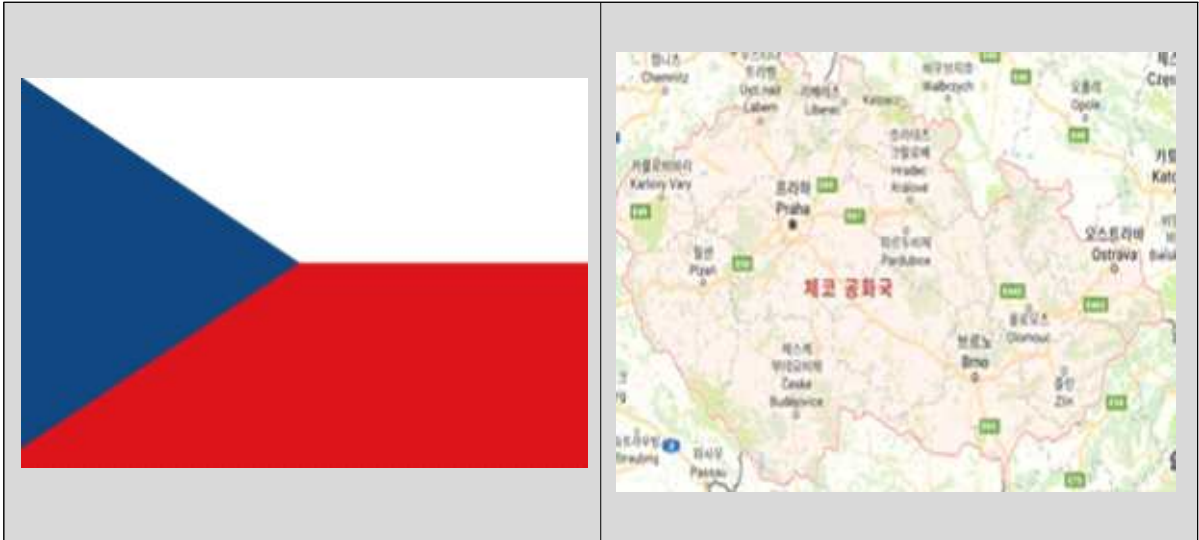
□ 기후

- 독일의 기후는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으로 서부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편서풍과 북해

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 위도에 비해 온난습윤하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면서 대륙성으로 바뀌고, 따라서 동부에서는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 기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큰데, 7월의 기온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 등온선이 위도에 평행하게 거의 동서방향으로 놓이는 데 반해, 1월의 기온은 동쪽이 낮고 서쪽이 약간 높아 등온선은 위도에 직교하게 남북방향으로 놓인다.
- 연평균강수량은 서부·남부에 많고, 특히 남부의 산지에서는 1,400mm 이상이며, 함부르크·베를린·뮌헨의 1월과 7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0℃와 17.3℃, - 0.5℃와 19.4℃, -2.2℃와 17.7℃ 이고, 연강수량은 각각 720mm, 556mm, 964mm이다.

2. 체코



□ 일반현황

- 수도 : 프라하
- 면적 : 78,866km² (한반도의 0.357배)
- 인구 : 약 10,700명(세계89위)
- 출산율 : 1.49명(2022년 기준)
- 행정구역 : 프라하 특별시, 13개주
- 국가GDP : 3,304억\$(세계47위) / 1인GDP 31,368\$(세계35위)

□ 개요

- 정식명칭은 체코 공화국(Czech Republic)이며 폴란드·독일·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으로, 크게 보헤미아(체히), 모라바, 실레시아(슬세스코) 세 지방으로 나뉘며,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분리되었다.

- 1999년 3월 12일에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가입하였으며, 2004년 5월 1일에는 유럽 연합의 정회원국이 되었으나 아직 유로존은 아니다.
- 민족 구성은 대부분이 서슬라브족에 속하는 체코인으로 인구의 90% 정도를 구성하며, 슬로바키아인은 두 번째로 주요한 민족이다.

□ 언어

- 체코어는 서슬라브어군에 속하는 언어로, 체코 공화국의 공용어이며, 같은 서슬라브어군에 속하는 슬로바키아어와 매우 가깝고, 폴란드어와도 가까운 관계에 있으며, 약 1200만명이 사용하고 있고, 그중 1000만명 정도가 체코에 살고 있다.
- 이외 사용자는 슬로바키아,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우크라이나 등에 거주하며, 폴란드어, 헝가리어, 우크라이나어 등에서도 차용어가 존재하며, 독일어에서도 많은 차용어가 사용된다.

□ 문화

- ‘나의 조국’ 2)등을 남긴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안토닌 드보르작을 비롯한 많은 음악가들을 역사 속에 배출하기도 했으며, 독일어로 많은 작품들을 남긴 프란츠 카프카³⁾도 프라

2) 체코의 작곡가 ‘비드르지흐 스메타나’가 1874년에서 1879년 사이에 작곡한 6악장 구성의 교향시
 3) 체코 태생의 작가로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라는 첫 문장이 유명한 소설 중 하나로

하 태생으로 관련 관광지가 많이 남아있다.

- 인구조사에서 종교적 소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상의 무종교자가 79%에 이르고 인구의 34%는 무신론자로 스스로를 밝혀 세계적으로 무종교, 무신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 최대 종교인 기독교는 신자가 12%에 불과하나 체코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중 인구의 10%는 천주교, 인구의 1%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후스파 개신교 신자이고, 인구의 1% 미만의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가 소수 있으며, 그 외에 동방 정교회(체코슬로바키아 정교회)와 유대교와 이슬람 신자도 존재한다.

□ 기후

- 체코의 대부분 지역은 습기 많은 대륙성 기후이므로 여름엔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엔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등 완만한 기온 변화를 보인다.
- 가장 더운 달은 7월이고, 가장 추운 달은 1월이며 12월에서 2월까지의 저지대도 영하로 떨어지고, 산악지방은 정도가 더 심하다.
- 사실상 ‘건기’ 라는 것은 없으며, 겨울에는 40에서 100일정도 눈이 내리고, 저지대는 안개까지 낀다.

뽑히는 '변신'의 작가이다.

2. 대상 국가 복지제도 학습

1. 독일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
대표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⁴⁾

○ 강제적 사회보험 제도 세계 최초 도입(1871)

- 독일제국 통일 및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강제적 사회보험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함
- 독일의 산업화는 영국보다 늦은 184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으나, ‘비스마르크⁵⁾’에 의한 독일 제국 통일(1871) 이후 19세기 말에 이르면서 선두적 산업국가의 하나로 급부상.
-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저임금 및 장시간 노동, 사회적불평등 현상은 노동자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결국 노동조합 운동의 확산을 초래하였으며, 1840년대 상부상조적 성격의 노조운동은 1860년대 이후 점차 정치적 성격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환되어짐.
-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독일제국을 통일한 ‘비스마르크’는 통일된 제국의 단합과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의 불만을

4) 크리스토퍼 피어슨(노팅엄대학 정치학 교수)은 저서 ‘근대국가의 이해(1998)’를 통해 복지국가의 기원을 사회보험의 최초 도입, 시민권의 신장과 공공복지에 의한 빈곤 퇴치, GNP의 3% 이상의 사회적 지출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함.

5) 1862년 프로이센 왕국의 재상이 된 후 군비확장을 강행하여 ‘철혈재상’으로 불리우며, 독일제국 통일 이후 1871년 독일제국의 재상이 되어 자본주의 발전을 주도함.

잠재우기 위하여 1871년 산재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강제적 사회보험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건강보험(1883), 연금보험(1889) 역시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음.

○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 도입(1963)

-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 도입 배경은 독일제국의 강제적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 배경과 유사함
- 박정희 정권의 집권 초기인 1963년,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인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됨.
- 박정희 정부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성장 정책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양적 팽창과 국민소득의 성장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음.
- 그러나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부의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였고, 국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 및 사회복지 욕구를 해소할 정치적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선택함.

□ 대표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 조합주의적 사회보험

-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지위에 따라 분화된 조합주의 성격의 사회보험제도 구축의 전통 출현
- 조합주의는 중세의 도시경제에서 사회경제적 삶을 조직했던 신분과 길드, 각종 공제조합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시장과 산업이 창출해 내는 사회적 파편화와 개인화를 막기 위한 보수주의의 주된 대응책으로 발전.

- 독일의 조합주의적 사회보험은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료 및 급여가 차등화되는 ‘등가(等價)원칙(equivalence principle)’에 따라 운영되며, 직능별 조합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사회보험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독일에서 사회보험 제도 도입과 함께 조합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가톨릭교회의 영향으로, 로마가톨릭교회는 조합주의를 전통적인 가족을 보존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대체할 수 있으며, 사회계급들을 조화로운 관계로 조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함.

○ 지역자치제의 복지 책임

- 두 번의 전쟁과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의 경험은 독일의 정치·경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지역자치 중심의 복지 체제 구축을 야기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탈피하여 집합주의 성격의 국민 전체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갈 때, 독일은 패전의 원인을 집합주의로 평가하고 중앙집권형 정치체제 보다는 지방분권형 정치체제로 나아감.

2. 체코

체제전환국의 복지국가

□ 체제전환국의 복지국가

○ 북유럽 다음가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국가

- 공산주의 정권 붕괴에 따른 체제전환국으로서의 특성이 복지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됨.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종료된 후, 소련군에 의해 해방된 체코는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 간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1946년 실시된 최초의 자유총선에서 공산당이 제1당으로 선출에 따른 공산당 1당 독재 정권이 실시되며, 1960년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과 동시에 국명 역시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개칭됨.

- 1968년 이른바 ‘프라하의 봄’으로 불리우는 민주·자유화 운동, 1988년 고르바초프에 의한 구소련의 개혁 바람이 동유럽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고, 결국 1989년 11월 공산정권이 표면적으로 붕괴, 1993년 1월 슬로바키아와의 국가분리로 이어지며 현재의 체코공화국 체제가 굳혀지게 됨.

- 이처럼 체코는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하였던 특성이 복지시스템 및 국민들의 복지 욕구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음. 실제로 체코의 빈곤과 불평등은 EU 27개국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급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럼에도 소득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부역할과 관련한 국민들의 복지 욕구 역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복지국가로서의 성공적 체제 전환

- 다른 동유럽국가들과 달리 탈공산주의 복지국가로서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권 체제에 속해있던 과거와 비교하여 기여-급여의 균형에 입각한 유럽연합(EU)의 복지체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음.
- 동유럽 국가 중 하나인 폴란드의 경우 체제 전환 이후 GDP 대비 복지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소득불평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며,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체코는 GDP 대비 복지지출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재분배 효과 및 효율성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고,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 역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복지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기대효과

- 우리시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과 함께 치매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수 증가는 치매관리 비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런 출장을 통해 여러 나라의 치매정책 대응 동향을 파악하고, 전주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맞춰 노인요양, 건강보장, 치매정책 등 노인 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 등 유럽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시가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치매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자 함.
- 특히, 치매안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형 치매전담형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현재 평화동, 진북동 2개소 마을 지정하였으며, 향후 추가 지정할 계획) 독일과 체코의 치매환자들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들을 견학하며 전주형 치매전담형 마을 조성에 적합한 모델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
- 더불어, 전주시는 통합돌봄사업 시범도시로 지정돼 선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시범사업 종료로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노인돌봄사업을 발굴하고 안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서 노인돌봄을 시행해온 유럽(독일,체코)의 우수사례를 조사와 학

습을 통해 이들 나라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돌봄 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

- 한편,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난 2차례의 돌봄 복지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당시 세미나에 참여한 독일 디아코니아 재단의 초청을 받아 이번 국외출장 일정 중 하나로 독일 현지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시설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함으로써, 앞으로도 전주시와 독일 디아코니아 재단과의 지속적인 돌봄정책에 대한 교류의 장의 계기를 마련 할 것으로 기대됨

※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했던 한일장신대학교에서는 매년 독일 디아코니아에 대학생을 파견하여 독일 복지정책을 몸소 체험하고 습득하여 복지정책의 이해를 높이도록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7월에 디아코니아 현지에서 한일장신대와 디아코니아 간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임. 이를 계기로 전주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향후에 독일 디아코니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

- 사전에 충분한 자료 및 사례를 조사하고 학습하여 실제 출장 중에는 일선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일정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돌봄 복지사업에 대한 고민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이번 국외출장의 주제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돌봄정책과 관련된 많은 사례와 현장을 보고 학습하는 기회로 활용

하고자 함.

- 더불어, 이번 공무국외출장단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비롯한 치매안심과, 아동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 돌봄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사까지 함께 구성되어, 민·관·의회가 함께 동행하며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학습함으로써 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담당공무원과, 의원, 사회복지사로서의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Ⅲ. 출장 내용

1. 연구과제별 주요 방문기관 연수 내용

Ⅲ. 출장 내용

1. 연구과제별 주요 방문기관 연수 내용

사전 간담회

□ 개 요

- 일 시 : 2026. 6. 27. 화. 14:00
- 참 석 자 : 공무국외출장 시의원 및 직원
- 주요내용 :
 - 공무국외 출장 일정 안내
 - 연구과제 설정 및 사전 자료 조사
 - 대상 국가(독일 및 체코) 사회복지 제도적 특성
 - 대상 국가(독일 및 체코) 문화적 특성 및 주의할 점
 - 방문 기관 개요 설명 및 기관 방문 시 연계하여 고려할 점



▲ 사전 간담회 진행

Schwalbach Tafel(쉬발바흐 타펠) - 무료식품공급처

□ 방문기관 개요

- 지역의 중·소 기업체 및 슈퍼마켓, 개인들의 기부를 통해 공급받은 다양한 생필품 및 식료품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공급센터로서 우리나라의 푸드마켓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독일 전역에 1,000여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개신교·가톨릭과 같은 종교 재단 혹은 사회복지 법인, 공익 재단·단체 등의 산하 소속으로 운영되며, 연수단이 방문한 Schwalbach Tafel(이하 쉬발바흐 타펠)은 개신교 단체인 “복음서 가족교육 협회” 산하로 운영되고 있음

□ 기관 주요 활동내용

- 이용대상
 - 수급자, 고령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이민 가구 등 취약계층
- 운영방식
 - 기부받은 물품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의 위생교육과정을 통과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철저한 검수 과정을 거친 후 이용대상에게 공급되며, 주 3회(화·목·토) 이용대상이 기관에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생필품 및 식료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어짐.

- 물품을 지원하는 방식은 별도의 한도(금액 및 수량)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기부 받은 물품의 수량과 이용대상의 방문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되어짐.

○ 운영인력

- 운영에 활용되는 인력은 약 120여 명이나, 이중 급여를 받는 유급 인원은 대표자 1명 및 행정직원 1명이며, 이외 운영인력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음.

○ 재정운영

-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한해 약 90만 유로(한화 약 13억6)수준으로 지자체 지원금과 기부금(시 지원금 20%, 기부물품 및 기부금 80%)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자체 지원금은 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로 사용되어짐.

□ 기관 방문 주요 내용

○ 대표 면담 및 시설 라운딩

- 기관 대표와의 면담 및 시설 라운딩을 통해 기관의 운영방식 및 각 공간들의 사용 현황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통해 전주시 적용을 위한 사례를 검토함

○ 기념촬영 및 기념품 전달

- 연수단 기관방문을 기념하는 사진촬영과 더불어, 전주 특산품인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자랑하는 대표 도시인 전주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6) 2023년 07월 현재 기준



• 질의응답

- 질의 1 : 기부형식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를 활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1 : 기부의 경우 대부분 식료품으로 운영되지만, 기부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이 기부금을 활용하여 식료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대상에게 쿠폰(바우처)으로 지급하여, 이용대상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생필품 혹은 식료품 상점을 직접 이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질의 2 : 취약계층이 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용대상이 느끼는 스티그마(낙인효과)⁷⁾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

- 답변 2 : 독일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하나의 마을이 구성되어 질 때부터 다양한 주거형태가 함께 구성 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로 묶여지도록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대상에 대한 스티그마(낙인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하고 있음.

□ 전주시 현황

○ 운영현황 : 전주시내 푸드뱅크 4곳, 푸드마켓 2곳

(이중 전주시 예산이 지원되는 곳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각각 1곳이며, 나머지 시설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협의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푸드뱅크 :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저소득 취약계층 등 신청자에게 수시적으로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방식
- 푸드마켓 : 기본적으로 푸드뱅크와 운영방식은 동일하나, 매장 형식의 시설에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생필품 및 식료품을 선택하는 방식
(연수단 방문 기관인 ‘쉬발바흐 타펠’ 과 유사한 방식)

7) 일반적으로 스티그마효과(Sigma Effect) 혹은 낙인효과는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로 사회복지급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로서 이를 지원받는 것에 따라 인간 존엄성과 가치, 인격의 손상 등의 낙인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 사업개요

- 위 치 : [뱅크] 완산구 소대배기로 18-34
[마켓] 완산구 장승배기로 245
- 사업규모 : 사회복지시설 300개소 / 저소득층 800가구
- 총사업비 : 101백만원(도비 10%, 시비90%)
- 추진근거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 전주시의 경우 앞서 설명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과는 별도로 관내 35개 동 주민센터에 ‘전주사람 온마음 푸드나눔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푸드마켓의 수가 많지 않음에 따라 주민센터를 통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주시 전역에서 취약계층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 시사점

○ 운영인력 부족

- 우리나라의 푸드뱅크 및 마켓은 운영인력 부족에 따른 고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자원봉사 활성화로 인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도 충분한 자원봉사자가 기관 운영에 활용되고 있음.
- 실제로 ‘쉬발바흐 타펠’의 경우 퇴직의사, 대학교수,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로서 기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기부문화 확산

- 독일의 경우 자원봉사 뿐 아니라 기부문화 역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어 기관 운영의 대부분이 기부금 및 기부물품으로 충당되고 있음. 즉, 소규모 마켓이나 주민 차원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유제품 및 재고가 남는 식료품등을 수시로 기부하는 등 자조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음.

Stiftung Waisenhaus(프랑크푸르트 고아원재단)

□ 방문기관 개요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있는 Stiftung Waisenhaus(이하 고아원재단)은 공공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679년 설립된 이후 320년 동안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고아원재단은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큰 독립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중 하나로 134명의 직원이 근무중
- 어린이 청소년 치료전문센터를 통한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지원, 사회진출을 위한 작업/기술교육, 편부모를 위한 육아교육 지원,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지원, 주거 지원 사업으로는 13세대의 모자가정 주거시설, 아동청소년 주거 및 보육그룹홈 6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그 밖에 과외와 학습을 위한 교육개발 지원사업, 방학지원금/수학여행지원금, 크리스마스 기부지원금, 일회성 보조도구 지원 등 650여명에게 현금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기관 주요 활동내용

- 이용대상
 - 다양한 문제(경제적 어려움, 정신질환, 사회부적응 등)를 겪

고 있는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청소년

○ 운영방식

- 시로부터 현재 4개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중임.

1) Mutter-Kind-Haus(어머니자녀집)

△미혼모 및 청소년 임신부를 위한 시설

2) Jugend wohn gruppe B uchen rode(청소년숙소그룹)

△문제행동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 문제행동이 적고 독자생활이 가능한 청소년(0층⁸⁾)
- 문제행동이 크고,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1층)
- 정신질환(우울, 강박, 정신분열증 등) 증상을 겪고 있는 청소년(2층)

3) Therapeutische Wohnge mein schaff(치료용 아파트)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며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치료용 숙소

4) Wohn-u. Tages gruppe Paul-Ehrlich Strake(자립지원 주거시설)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주거시설

- 위탁운영 외 간병 및 자립지원사업, 한부모가정 청소년 대상 긴급지원 등의 재단 독자 사업 운영

○ 조직 및 인력

- 고아원재단은 크게 행정운영 파트와 자산관리 파트, 아동·청소년 지원 파트로 구분되며, 전체 134명의 직원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8) 독일의 경우 땅에 맞닿아 있다는 의미의 '땅층(Erdgeschoss)' 즉, 0층이 존재하며, 한국의 1층을 의미함

○ 재정운영

- 전체 수입 중 재단 소유의 부동산 수입이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기부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이 25%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기관 방문 주요 내용

○ 재단 브리핑 및 기념품 전달

- 재단 총괄 담당자의 브리핑을 통해 재단의 전반적 운영 현황 및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각 시설의 운영 특성에 대한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함.



□ 전주시 현황

○ 아동복지 사업개요

- 사업비 : 13,147백만원
- 사업내용 : 양육상황 점검 등 ‘빠짐’ 없는 아동보호 종합 지원체계 구축
- 현 황

구분	총 계	아동생활시설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소계	아동양육 시설	자립지원 시설	학대피해 아동쉼터	일시보호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개 소	349	24	3	1	1	1	18	135	190
인 원	595	210	109	9	2	6	84	161	224

- 아동생활시설 운영 외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입양가정 지원 및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후관리 등의 사업 시행중

○ 청소년복지 사업개요

- 사업비 : 7,164백만원
- 사업내용
 - △활동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제공
 - △복지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각종 상담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교육 지원
 - △보호지원 : 청소년쉼터 운영 및 가정 밖 청소년 가정·사회 복지 지원
- 이외 청소년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성교육 내실화 및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진행중

청소년복지시설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 쉼터
		11	6	1	1

□ 시사점

○ 청소년 생활시설의 다양화

- 독일의 경우 가정에서 다양한 어려움(경제적 어려움, 가정 생활 문제행동,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룹홈⁹⁾ 형태의 다양한 생활 시설을 운영중임.
- 전주시 역시 다양한 종류의 아동생활시설을 운영하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음.
- 그러나 독일과 비교하여 우리시의 경우 아동생활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학대·폭력 등으로 원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있음.
- 반면, 독일의 경우 단순히 부모의 부재 뿐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모두 지원대상이며, 부모의 존재 및 경제력¹⁰⁾ 등도 지원여부와는 무관함.
- 우리시 역시 부모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문제를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상담 서비스 지원 형태에 국한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 문제 수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제한적임.

9)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각각 소수의 그룹으로 묶어 가족적인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뜻함

10) 원가정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수준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지원 여부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vangelische Stadtmission Karlsruhe [스타드 미션]-카를스루에 시민교 재단

□ 방문기관 개요

- 카를스루에에 위치한 Evangelische Stadtmission Karlsruhe(이하 스타드미션)은 산업화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1882년, 기독교 복음주의 협회에 의해 설립된 복지재단임
- 스타드미션은 주로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단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노인요양,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며, 현재는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노인 및 장애인, 이외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하여 시설 및 가정내 파견을 통한 간병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간호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도 수행중임
- 연수단의 경우 해당 재단의 시설 중 치매 노인에 대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생활)시설에 방문하였음

□ 기관 주요 활동내용

- 이용대상
 - 치매를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 운영방식

- 치매노인에 대한 생활시설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파견 및 주간보호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음

□ 기관 방문 주요 내용

○ 재단 브리핑 및 기념품 전달

- 재단 대표의 브리핑을 통해 재단의 전반적 운영 현황 및 치매 노인 간병 서비스, 각 시설의 운영 특성에 대한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함.



• 질의응답

- 질의 1 : 치매노인이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 답변 1 : 각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 다르게 정해지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 역시 다르게 책정됨. 기본적으로 모든 노인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 받는 요양보험(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혜택을 받으며, 본인이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노인 스스로 부담함. 다만, 서비스 수준의 상향에 따라 자부담 비율 역시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기에, 이에 대한 공적차원의 지원 수준 역시 상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낌.
- 질의 2 : 재단 및 시설에서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
- 답변 2 : 최근 종사자의 전문성이 향상¹¹⁾됨에 따라 자격기준을 취득한 전문인력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단 및 노인 요양 분야에 대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음과 동시에 서비스 수준에 따라 종사자 자격 취득 기준을 구분하는 대안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해외에서의 전문인력 수급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로봇 등을 통한 간병 서비스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1) 기존에는 요양보호사 자격과 간호사 자격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간호사 자격 시험 및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이 통합됨

□ 국내 현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 주요특징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노인중심의 급여

Diakonien Warttemberg[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 방문기관 개요

- 독일 디아코니아¹²⁾(Diakonie)는 독일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된 복지재단으로, 독일 전역의 디아코니아에는 약 60만명의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약 5,000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음.
- 뷔르템베르크에 위치한 Diakonien Warttemberg(이하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는 디아코니아의 본부 역할을 수행중이며, 1,400여개의 산하 복지기관을 두고 5만명 이상의 직원과 35,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되어 있음.
- 27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에 의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실업자, 노숙자, 빈곤층, 약물중독, 이민자, 난민 등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음.
- 주로 교회세, 정부(연방, 주, 지자체)의 보조금, 보험료(건강, 장기요양 및 실업보험), 기부금으로 운영

12) Diakonisches(디아코니아)는 헬라어로 ‘봉사’를 뜻하며, 디아코니아의 실천은 요한 힌리히비헤른의 디아코니아 신학과 실천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음

□ 기관 주요 활동내용

○ 주요 역할

-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노인 복지, 실업부조,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건강보호, 이주민문제 등 모든 연령의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

○ 주요 업무

- 심리 정신적 케어
장소와 상관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Client)가 원하는 장소에서 케어 실시
- 취업 지원
노동을 통한 자립과 가족 부양을 목표로 취업 교육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통합적 상담 지원
1차 상담을 통해 어느 기관에서 서비스가 필요한지 진단하여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찾고 연계 서비스 수행
- 학교 상담
학교에서 학생이 문제가 심각하여 학교 자체에서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사회복지 총괄기관의 직원을 파견해 학생들을 케어
- 자립지원금 지원
사용하지 않는 가구 및 기계,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거나 수거하여 필요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판매 수익을 자립지원금으로 지원

- 취업동행 서비스

학교를 졸업하고 12개월 동안 직업을 갖지 못하는 취업준비생, 난민 및 이주민, 사회부적응자 등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동행하여 면접 및 통역 지원을 통해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관 방문 주요 내용

○ 재단 브리핑 및 지속적 협력 관계 확인

- 재단 대표의 브리핑을 통해 재단의 독일 내에서 디아코니아 재단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함
- 디아코니아의 경우 2022년 11월에 전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지역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국제학술세미나’ 및 2023년 4월 ‘장애인 권리선언과 포용적 실천방안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주요 발제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이번 전주시의회의 디아코니아 방문 역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이뤄진 디아코니아 측의 초청에 대한 답방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이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디아코니아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에 대한 양국의 복지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것에 공감하였음.



• 질의응답

- 질의 1 : 재단이 최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복지적 사안은 무엇인지?

- 답변 1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독일 내 취약 계층(빈곤층, 실업자, 한부모가구 등)의 식료품, 난방 등과 관련한 가계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재단의 역량을 이러한 사안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지속적인 난민 정책과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난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능 역시 강화하고 있음.

□ 시사점

○ 민간 복지재단의 기능 확장

- 디아코니아의 경우 민간 복지재단으로서 정부(주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단순히 현장에서의 실천(사업, 민간위탁 등)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영역에서 관련 정책/제도적 기조를 이끌어가고, 국가 및 주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 및 관에서 복지정책의 기조를 주도하기에, 민간영역의 역할은 단순 위탁운영 및 사업 수행의 역할로 제한되어지는 경향이 강함.
-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복지욕구 역시 다변화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제공 역시 수요자의 복지욕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
- 이에 민간영역에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재단에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대변한 정책/제도적 제언 기능을 확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Eva Evangelical Society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복음주의 단체] - 디아코니아 산하 공익단체**

□ 방문기관 개요

- Eva Evangelical Society Stuttgart(이하 에바)는 독일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로, 디아코니아 산하에서 슈투트가르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음.
- 에바는 독일 내 대표적 공업도시인 슈투트가르트가 산업화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지만, 동시에 급격히 빈곤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830년에 설립되었음.
- 현재는 주로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약 1,300여 명의 직원 및 약 1,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소속되어 있고, 약 41,000여 명이 에바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음.

□ 기관 주요 활동내용

- 주요 업무
 - 젊은이들을 위한 서비스
 -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업, 부채 혹은 범죄 경력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의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역의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교 사회 사업 및 청소년 사업,
이주여성 교육사업을 지원

- 미혼모 지원

양육, 교육, 치료 지원 및 임신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며, 외래 아동 양육 지원 외에도 입원시
설, 정신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청소년 난민
지원, 임신부를 위한 조언 및 조기 지원 제공

- 빈곤층, 주택 부족 및 이주자를 위한 서비스

25세 이상 사회적으로 특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채
가 많거나 주택이 부족하거나 이민을 온 사람들을 대상으
로 데이케어센터, 상담센터, 중앙 부채 상담 서비스, 난민
수용소의 사회서비스, 시간제 및 전일제 거주 형태의 주택
긴급 지원 등을 제공

- 정신건강 서비스

외래 진료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에이즈 상담, 중독문제 상담 및 치료, 주
간 센터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개별 지원 등을 제공

- 노인을 위한 서비스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요양원 운영 및 치매환자를 위
한 치료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요양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

□ 기관 방문 주요 내용

○ 단체 브리핑 및 기념품 증정

- 에바 이사회 의장의 브리핑을 통해 단체와 디아코니아와의 관계 및 슈트트가르트 지역에서 에바가 수행하는 역할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로 제작된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하며 전주를 소개함.



• 질의응답

- 질의 1 : 에바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상들이 주로 에바를 주로 이용하는 방식은?(이용 혹은 생활시설)
- 답변 1 : 에바에는 대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필요한 다양한 유형

의 시설이 존재하며, 필요에 따라 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시설에 적합한지에 대해선 연방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대상에 대한 판정을 내린 후 필요한 서비스를 에바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질의 2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 생활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 의료진 및 진료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되는지?
 - 답변 2 : 에바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에는 전문 의료인이 상주하고 있어 시설 내에서 진료가 가능하지만 독일의 경우 개인 주치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진료 방식이 결정됨
-

Jugendzentrum Kleingartacher
[클레인가르타흐 청소년 센터]

□ 방문기관 개요

- Jugendzentrum Kleingartacher(이하 가르타흐 청소년 센터)는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에 소속된 기관으로 뷔르템베르크 하일브론 지구에 있는 가르타흐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일브론 지구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을 위해 1949년 개소하였음.
- 가르타흐 청소년 센터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교육 분야에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한 부모,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학대, 폭력, 부모의 정신질환 등 가정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4개의 그룹 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된 개체로서의 성장과 자립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음.

□ 기관 주요 활동내용

- 주요 업무
 - 지원센터
 - 주거지원과 교육 및 치료지원을 함께 수행하며, 입소 아동 및 청소년의 독립된 생활을 위한 훈련을 지원
 - 거리 지원
 - 가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거리로 나온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직접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결을 위한 연계 활동

- 학교 사회 사업

학교 교육에 부적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방식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대안학교 및 직업학교

의무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학교 및 직업학교를 운영하여, 이들의 독립을 지원

- 부모 교육

가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및 가정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 및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기관 방문 주요 내용

○ 기관 브리핑 및 기념품 증정

- 센터의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브리핑 진행



Domov PRO Seniory Chodov - [코도브 요양원]

□ 방문기관 개요

- Domov PRO Seniory Chodov(이하 코도브 요양원)는 체코 프라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급자족 능력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중 주거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990년 개소하였음.
- 코도브 요양원은 자립능력 저하, 노령, 사회적인 이유로 더 이상 가정에서 머물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주거서비스를 통하여 자연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돌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음.
- 현재 코도브 요양원의 수용 가능 인원은 260명으로 현재 250여 명의 노인(남성 54명, 여성 196명)이 생활 중이며, 총 162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음.

□ 기관 특성

- 건축적 특성
 - 독자적 생활공간 구축
 - 총 4개 동의 개별 건물이 상호 연결된 형태로 설계되어 이용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구별되어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260명의 수요 가능 인원에 대하여 100개의 1인실, 53개의 2인실, 18개의 3인실로 최대한의 독자적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 공동 활동 공간 구축
 - 각 개별 건물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건물 중앙에 구축

된 중앙 정원은 평소 입소 노인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가족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공용거실 및 식당 등이 다수 구축되어 있으며, 공용 도서관, 극장, 예배실 등 상호 소통을 위한 공간이 다수 마련되어 있음

- 추억의 방

치매노인의 경우 단기기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기억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치매노인의 추억과 향수를 상기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음

○ 운영적 특성

- 포괄적 수용

한국의 경우 요양원은 주로 치매 혹은 중증 질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대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적은 노인들은 요양원이 아닌 유료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이들에 대한 공적지원은 없음.

반면, 체코 요양원의 경우 치매, 중증 질환 노인 뿐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 모두가 대상에 포함되며, 자기 부담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공적 지원대상에 포괄됨

□ 기관 방문 주요 내용

○ 기관 라운딩 및 기념품 증정

- 요양원 시설 전체를 전반적으로 둘러보며, 시설 내 각 구역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진행 및 한국 노인 요양시설과

의 비교를 통한 질의응답 진행



□ 전주시 현황

○ 노인복지시설 사업개요

- 사업비 : 24,535백만원
- 사업내용 :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및 기능보강 실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및 갱신 전환 심사
- 현 황

합 계		양로시설		재가지원 서비스 수행기관		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장기 요양기관	
개소	인원	개소	이용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개소	이용자	개소	이용자
399	8,693	1	32	18	1,178	47	1,609	112	2,902	221	2,972

- 재가지원서비스 수행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18개소 1,781백만원), 노인생활시설생계급여 지원(43개소 327명 589백만원)

○ 치매지원사업개요

- 사업비 : 2,931백만원
- 사업내용 : 병원 내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 치매환자·가족 지원사업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 시사점

○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에 대한 공적지원 확대

- 한국의 경우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으로 구분되며 시설의 종류에 따라 입소 자격 및 공적지원수준이 구분됨.
- 특히 요양원의 경우 치매 및 중증질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만 입소가 가능함.
- 반면, 양로원 및 실버타운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노인들이 이용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공적지원은 제공되지 않음.

	요양병원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
--	------	-----	-----	------

시설구분	법적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요양시설	주거시설	
입소자격	없음	노인장기요양등급	없음	
의료인 상주여부	상주	없음		
돌봄서비스	없음	24시간 돌봄 (요양보호사)	없음	식사, 청소
비용부담	본인부담 20% 건강보험 80%	본인부담 20% 건강보험 80%	본인부담 100%	
주 제공 서비스	의료 및 병간호	돌봄서비스 여가프로그램	청소, 식사 외 여가프로그램	청소, 식사 공동프로그램

- 반면 체코의 요양원 개념은 한국의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 개념이 통합되어있는 방식으로, 치매 및 중증질환 노인 뿐 아니라 일반 노인들도 함께 포괄하는 방식이며, 증상에 따른 자기부담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나, 모든 노인이 요양에 대한 공적지원에 해당됨.

IV. 정책적 시사점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확대
2. 치매노인 특성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조성
3. 지역대학과의 관학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급
4.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 증대를 통한 푸드마켓 확대 및 자조기능 향상

1.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확

RU

□ 문제의식

- 최근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을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생활 및 사회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1)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 2) 시장경제 시스템의 변화 및 가족 환경의 영향력
 - 3) 가족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체계와 위기상황
 - 4)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과 아동·청소년 주변 생활환경의 급변화
-

- 특히 코로나 19로 아동·청소년들의 상호작용이 어려워지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게임 몰입 등에 의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지원은 질적·양적으로 모두 미흡한 수준임.
- UN 아동청소년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아동·청소년을 그 자신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있어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아동·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
- 실제로 「아동복지법」 제1조¹³⁾에서는 법의 제정 목적을 모

13) 「아동복지법」 제1조 :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든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법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동학대 혹은 가정의 부재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임.

- 전주시의 아동복지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음. 현재 전주시 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아동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은 아이 자체가 아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사업에 해당되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호대상아동 및 아동학대, 경제적 취약계층 등 특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에 국한되어 있음.

전주시 아동복지과 소관 사업

연번	사업명	비고
1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보육
2	보호대상아동 공적보호 책임 강화	보호대상아동
3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통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보육
4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종합대응체계 강화	아동학대
5	아동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맞춤형통합서비스	취약계층
6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

- 비록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청소년팀을 통해 청소년 지원사업이 운영 중이긴 하나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현재 전주시의 청소년 지원은 매우 제한적임.
- 사업의 종류 뿐 아니라 책정 예산에서도 큰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전주시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약 12만명인데 반하여 아동·청소년 사업 예산은 약 120억 수준에 그치고 있

음. 약 14만명의 노인인구에 대하여 책정된 예산이 약 816억인 것과 비교하면 1인당 지원 예산은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실정임.

- 이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아동·청소년 활동과 지원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보호 체계가 촘촘하게 구축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도입과제 : 지역중심의 아동·청소년 중심 지원사업 확대
아동 및 청소년 정책 전담부서 통합 운영 및
가정·학교 밖 위기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필요

□ 정책적 제언

- 아동·청소년 정책추진 전담부서의 통합 및 권한 강화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우선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의 통합이 요구됨.
 - 「아동복지법」 14)과 「청소년 기본법」 15)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복지 및 청소년복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 여건 조성 및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이 아동·청소년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발달’은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적 변화과정을 의미함.

14)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 : 제1호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2호 -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4호 : 제1호 -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호 -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더불어 법적 아동 및 청소년의 범위 역시 생애주기상 상당부분이 중첩되어 있기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은 각 대상별로 분절되기 보다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되는 것이 아동·청소년 복지의 취지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이처럼 각 정책의 지원대상 및 지원목적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경우 아동·청소년 복지 담당 부서가 각각 복지환경국과 기획조정국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의 어려움 및 장기적 정책 수립의 부재, 각 부처 간 유사 업무 실시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협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아동·청소년 복지를 가족, 노인, 여성, 아동 등과 함께 ‘가족복지’의 영역으로 포괄하고 있고, 연방정부 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청소년청’을 통해 일괄적인 정책수행이 이루어져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높음.
- 우리사회의 경우에도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고양시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을 복지부서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남원시, 거제시, 창원시, 김해시 등 아동과 청소년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
- 이에 전주시의 경우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우선적으로 현재 기획조정국 산하로 편제되어 있는 청소년 정책 부서를 복지환경국 산하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성을 향상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요구됨.

○ 학교 밖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 전주시의 경우 학교 밖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확대가 요구됨.
-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정확한 파악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생애주기 상 가장 결정적 시기에 학교라는 제도권 교육 체제에서 이탈함으로써 개인적·사회적 낙오의 원인이 되며, 비행·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인적자원 손실 및 사회적 비용 발생을 야기함.
- 이러한 실정에도 전주시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은 질적·양적으로 모두 미흡한 실정임. 복지부서 산하 아동복지과의 경우 대부분 아동의 돌봄·보육 및 아동학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의 경우 1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위기상황 및 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수용하기에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처한 대상들의 적극 발굴과 맞춤형 지원 정책의 개발이 요구됨.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중 대다수가 부모의 이혼·재혼 등 혼란스러

은 과정 등에서 부모의 애정결핍, 정서적지지 부재, 학대 및 가정폭력 등 심각한 가족 문제를 지니고 있음.

- 즉, 학교를 나와서도 깨어진 가족구조로 인해 비행과 일탈을 지속 경험하거나, 반대로 무기력한 삶이나 자포자기 성향으로 집 안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실태를 보이기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더불어, 학교 밖 배움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역시 요구됨. 전북지역에 소재한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대부분이 지역사회와 거리가 먼 면단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숙사 생활 및 종교적 성향을 띄고 있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 기숙생활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함.
- 이에 가장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은 전주시가 기존의 생활 반경 안에서 학교 밖 배움터를 이용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양질의 대안학교 발굴 및 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2. 치매 노인 특성에 따른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문제의식

-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매노인의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한 방임, 학대, 실종 등의 문제 역시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음.
- 중앙치매센터의 ‘2016 치매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75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지난 한 해동안 약 25,000여명이 치매 관련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치매로 등록한 인원 역시 10,000여 명에 이룸.
- 치매를 앓게 되는 경우 크게 인지증상과 정신행동증상 등 다양한 증상과 변화들을 보이기에 치매노인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요구됨.
- 또한 치매의 경우 치매노인 본인 뿐 아니라 이를 돌보는 가족들 역시 많은 정서적·신체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치매노인과 더불어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요구됨.
- 전주시에서도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2023년부터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도입과제 : 치매노인 특성에 따른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정책적 제언

○ 치매 특성을 고려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는 인지기능 및 정신행동 상 다양한 증상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러한 변화는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생활양상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기에 치매 특성을 고려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전주시 역시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치매노인에게 안전한 물리적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독일 및 체코의 경우에도 치매노인의 특성에 따른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선진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1) [가짜 버스정류장]을 통한 치매노인 실종 예방

- 치매를 겪게 되는 경우 흔히 알려진 기억력 및 언어기능 저하 이외에도 인지기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중 시간 지남력 저하와 시공간 능력 저하가 대표적임.
-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저하는 치매노인의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빈번한데, 실제로 전북지역에서 치매로 인하여 발생한 실종이 4년간 평균 약 315건에 이르고 있음.
- 이에 치매 친화적 환경을 위해선 치매노인의 실종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독일의 경우 [가짜 버스정류장]이 대표적임.

- 독일 뒤셀도르프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매로 인해 거주하는 집이나 시설을 벗어난 노인들은 기억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장기기억에 의해 버스정류장과 같은 익숙한 공간을 찾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습성에 주목함.
- 이후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노인 요양시설 주변에 노선에 없는 버스정류장을 조성하였고, 가짜 버스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치매노인들은 자신이 왜 이곳에 앉아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노인을 찾은 직원에 의해 안전하게 시설로 복귀하게 되었음.
- 이러한 독일의 가짜 버스정류장은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에 큰 효과를 보였으며 유럽 각지에 도입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전주시 역시 치매안심마을을 중심으로 치매 특성을 고려한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독일의 요양원 및 치매 시설 앞에 노인들을 위해 조성된 '가짜 버스정류장'은 치매 특성을 고려한 환경 조성으로 치매노인 실종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

2) [추억의 공간]을 통한 치매노인 정서적 안정 도모

- 치매를 앓게 되는 경우 인지기능 저하와 더불어 정신행동 증상의 변화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특히 우울, 초조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무감동·무관심 등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나 흥미를 잃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시작하려는 의욕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
- 이에 치매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연구를 통해 회상요법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음.
- ‘회상요법’은 치매노인의 경우 기억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장기기억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거 환경과 문화 및 생활양식들을 재이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요법임.
- 실제로 관련 연구 결과¹⁶⁾에 따르면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회상요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인지기능의 향상과 더불어 생활만족도 증가, 우울과 불안증상의 감소 등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연수단이 방문한 체코의 ‘코도브 요양원’의 경우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요양원 내 치매노인들이 회상요법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조성하여, 해당 공간을 통해 치매노인들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16) 치매노인환자를 위한 인지요법과 회상요법의 효과성 비교 연구(공정희, 2018)



체코 ‘코도브 요양원’의 경우 시설 내 ‘추억의 공간’을 통해 치매노인들이 해당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음

- 이에 전주시의 경우에도 회상요법 및 체코 ‘코도브 요양원’ 사례를 접목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중심으로 ‘추억의 공간’ 조성을 통해 치매노인 및 가족들 간 상호 소통 장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치매노인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관학협력 강화 및 사회복지 전문인력 처우개선

□ 문제의식

- 현재 독일 사회복지기관들의 공통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급 문제이며,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음.
- 실제로 연수단이 방문했던 기관 중 ‘스타드 미션’ 및 ‘고아원 재단’ 등에서는 최근 기관 및 재단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회복지적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음.
- 우리 지역사회 역시 독일과의 사례와 그 배경은 다소 다르지만, 지역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전문적 사회복지 인력이 원활히 수급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독일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서 자격 기준의 상향과 관련되어 있음. 즉, 이미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기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노인 돌봄 사회복지 자격시험과 간호사 자격시험이 통합되며 노인 돌봄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 간호사 자격을 지니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추세임.

- 반면, 우리 사회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급 문제의 양상은 독일과는 다소 상이함. 독일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전문성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절대적 수에 따른 수급문제라면, 우리의 경우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절대적 수보다는 충분한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수급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자격은 크게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2급 자격증은 비교적 쉽게 취득이 가능한 반면,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 합격을 해야하고 그 합격률도 평균 35% 내외로 수월한 편이 아니기에, 독일에 비해 그 전문성 수준이 결코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절대적 수는 부족하지 않으나, 수급되는 전문인력의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이며,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실천 현상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거친 이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일자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이에 우리 지역사회 및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지역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원활히 수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입과제 :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인력 수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역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와

지역사회 사회복지 실천현장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유대감 형성 필요

□ **정책적 제언**

○ **관학협력 강화 및 지역대학교 지역 사회복지 실천현장과의 지속적 교류**

- 전주시는 전라북도 중심 도시로서 도내 고등교육의 핵심인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에서 충분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전문과정을 거친 인력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배경에 기인하지만 그중 하나로 지역사회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대한 예비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이 이해와 관심의 부족을 하나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즉, 사회복지 분야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역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인 관학 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로 부산 청학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지역대학인 고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의 관학협력을 통해 ‘고독사 제로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를 실시하였음.

- 서울 도봉구 역시 2023년 2월 덕성여자대학교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도봉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함께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그물망 복지사업」 시행을 결의하였음.



실습을 마친 예비 사회복지사 3,4학년 학생 70명이 독거노인 200가구를 방문함으로써 고독사 위험군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표를 작성 및 심층 욕구조사를 시행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구축함

고신대학교 & 부산 청학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그물망 복지사업」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빈틈없는 도봉을 비전으로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전 계층의 지원체계를 보강해 구민 모두가 공정한 기회 제공을 받아 함께 행복한 도봉을 만드는 사업임

덕성여자대학교 & 서울 도봉구

-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은 지역대학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이러한 인력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자 책무임.
- 이에 전주시는 지역 대학의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학협력에 나서는 것이 요구됨.

○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 지역사회가 충분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대학과의 적극적 관학협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 수준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산업/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전체 사회복지사 중 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실태는 결국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치고 1급 자격까지 취득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비교적 시설규모가 큰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직종으로 취업을 희망하기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하거나 지원금이 열악한 복지분야에는 사회복지사로서 준비과정이 짧은 인적자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임.
-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매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지침을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

- 실제로 전주시 역시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실태조사 실시 및 처우개선계획의 수립, 필요한 보수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사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현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지역사회로의 수급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전주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만큼, 전주시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 증대를 통한 푸드마켓 확대 및 자조능력 향상

□ 문제의식

- 전주시의 경우 ‘쉬발바흐 타펠’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푸드마켓이 운영 중이나 지역사회의 규모에 비하여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인력 및 기부물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보이는 실정임.
- 비록, ‘전주사람 온마음 푸드나눔 냉장고’ 가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어 푸드마켓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주민센터 본래의 기능과 정합되지 않으며, 식료품 취급으로 상시적 관리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 푸드마켓의 기원¹⁷⁾과 같이 본래의 목적이 지역사회 상점에서 유통할 수 없게 된 식품을 기부받아 지역사회 내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지역사회의 자조능력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며,
- 장기적으로 푸드마켓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해당 기능을 주민센터에서 분리함으로써, 주민센터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됨.

17)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존 밴 헝겔(John van Hengel)’이 지역사회의 대형매장 등에서 섭취에 지장이 없음에도 유통기한 등의 사유로 폐기되는 식료품들을 기부받아 교회 창고에서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봉사활동에서 유래

▶ **도입과제 : 푸드마켓 확대 및 자조능력 향상**

푸드마켓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간 마련 및 자조능력 향상을 위한 과업 수행이 검토됨

□ **정책적 제언**

○ 전주시 도시재생거점시설을 활용한 푸드마켓 확대

- 전주시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¹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거점시설이 매년 조성되고 있음.
- 201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진행된 전주시 관내 도시재생사업수는 총 16개소이며, 6개소의 사업은 이미 종료되었고, 2023년부터 2027년에 이르기까지 총 11개소의 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 주도의 운영,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도시재생거점시설이 매년 조성되고 있으나,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에 정합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거점시설은 부재한 실정이며, 빈집과 나대지의 급증으로 인해 활용을 기다리는 도시재생거점시설 외 건축물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실제로 현재 준공 완료된 도시재생거점시설 14개소 중 6개소가 미운영되고 있고, 현재 운영중인 시설 중 상당수가

18)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약 25개 정도의 도시재생거점시설이 준공예정 혹은 계획 중에 있는 실정임.

- 이에 현재 준공되었거나 준공 예정인 도시재생거점시설을 푸드마켓으로 활용한다면, 푸드마켓 확대를 위해 필요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활용방안이 요연한 도시재생거점시설 역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정합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쉬발바흐 타펠’ 역시 지역사회 내 폐업한 슈퍼마켓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등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공간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쉬발바흐 타펠’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정서적·지리적으로 근접한 폐업한 슈퍼마켓 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자조능력 향상

- 기본적으로 푸드마켓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잉여 상품을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무엇보다 해당 기관의 ‘자조(自助)¹⁹⁾’ 능력이 필수적이며, 자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지역공동체²⁰⁾ 역량을 강

19) “자조(自助)”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이 협력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함

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대사회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유형²¹⁾을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지역복지형 공동체 유형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됨.
- 지역복지형 지역공동체는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복지, 나누는 복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열어나가는 복지,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개개인들의 긍정적 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는 유형”으로 푸드마켓이 지향하는 운영 방안과 매우 정합한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복지형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역복지에 대한 지역공동체 공동의 관심을 유발하고, 스스로 이를 고민하기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푸드마켓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매우 적절함.



‘쉬발바흐 타펠’ 내 공용공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 “지역공동체”란 마을이나 동네 등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유대감을 가진 집단을 의미함

21) 현대사회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유형을 지역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목도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복이 구현될 수 있는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지역산업형, 지역교육형, 지역복지형, 지역안전형, 문화역사형, 다문화지원형, 생활정비형, 환경생태형으로 구분됨

- 실제로 ‘쉬발바흐 타펠’의 경우에도 단순히 기부받은 식품을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누구나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와 기부 활성화로 연결되는 긍정적 순환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지역복지형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도시재생거점시설과 연계한 푸드마켓의 확장은 푸드마켓의 자조능력 향상과 더불어 공간적·기능적 확장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도시재생거점시설에게는 본래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운영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V. 개별 연수보고서

V. 개별 연수보고서

1. 대표의원

이남숙 의원

전주시 청소년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7. 10.(월) ~ 2023. 7. 18.(화)
- 방문국가 : 독일, 체코
- 방문목적
 - 유럽의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정책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돌봄복지 방안 연구
- 작성자 : 복지환경위원회 이 남 숙

□ 현 황

-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활 및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시장경제 시스템에 따른 가족 환경의 영향력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보호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며 위기 아동·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게 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아동·청소년을 장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확대 및 비대면 상황에 노출시킴으로

서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감소시켰고,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사용증가, 게임몰입 등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2020년 진행된 ‘전주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전주시 아동·청소년 중 약 16%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이 위험군에 속해 있으며, 이 중 약 20%는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고위험군 중 약 70%가 실제 위기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주시의 각별한 관심과 전문가의 위기개입이 필요하며, 이에 전주시 아동·청소년 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출장 세부내용

-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역의 대표적 아동·청소년 지원 단체인 STIFUNG WAISENHAUS(고아원재단)을 방문 및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아동·청소년 생활시설 운영방법 및 자립지원청년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연구
- 독일 뷔르템베르크에 위치한 DIKONIAE WARTTEMBERG(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에 방문해 디아코니아 이사장 및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독일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및 민간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연구
- 독일 디아코니아 산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인 Jugendzentrum Kleingartacher(클레인가르타흐 청소년 센터)에 방문하여 복지재단과 산하 복지시설과의 관계 및 아동·청소년 생활시설의 아동관리체계에 대하여 연구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I . Stiftung Waisenhaus(프랑크푸르트 고아원재단)

○ 기관개요

- 프랑크푸르트 지역 복지기관 중 아동·청소년 분야로 가장 큰 규모의 기관이며, 1679년 설립 이후 지역의 주요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심리치료 및 작업·기술교육, 주거지원 사업, 보육 그룹홈 6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34명의 직원이 근무 중.



○ 사업내용

1) 청소년생활시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 또는 장기거주 시설 운영
 - ① 청소년 숙소 그룹 : 문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룹홈
 - ② 치료용 아파트 : 정신과 의사가 상주하는 치료용 숙소
 - ③ 자립지원 주거시설 : 자립준비청소년 대상 주거시설

2) 모자가정지원사업

- 미성년임산부, 미혼모 및 모자가정 대상 주거지원사업

3) 긴급위기지원

- 저소득 가정 및 한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취미지원 등 교육서비스 및 현금지원

II . Diakoniae Warttemberg(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 기관개요

- 디아코니아는 독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된 복지재단으로 독일 전역에 퍼져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독일 전역의 디아코니아에는 약 60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약 5,000여 개의 산하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의 경우 디아코니아 복지재단의 본부이며 1,400여 개의 산하 복지기관과 약 5만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 중임.

○ 사업내용

- 주로 정부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며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가족, 이민자, 실업 등에 관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대체로 심리 정신적 케어, 취업 지원, 통합적 상담 지원, 학교 상담, 자립지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방문 주요 내용

- 디아코니아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전주시의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사례가 존재함(1차: ‘지역 아동·청소년 사회 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국제학술세미나’ -2022. 11. / 2차: ‘장애인 권리선언과 포용적 실천방안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2023. 4.)
- 이번 전주시의회의 방문을 통해 디아코니아의 아동·청소년 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독일 아동·청소년 복지 시스템 및 노하우를 경험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체감함.



Ⅲ. Jugendzentrum Kleingartacher(클레인가르타흐 청소년 센터)

○ 기관개요

-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산하 청소년 시설인 클레인가르타흐 청소년 센터는 독일 뷔르템베르크 하일브론 지구의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위해 1949년 가르타흐 마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016년 개조된 에핑겐 기차역에 행정본부가 입소하여 기차역과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주로 문제행동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육과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 그룹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사업내용

1) 주거지원센터

- 문제 행동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 및 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청소년, 한부모, 임시보호시설 등 각 시설마다 전문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입소 대상의 복귀 및 독립을 목표로 지원함.

2) 학교지원 사업

- 부적응 혹은 위법행위로 인해 의무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아동·청소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3) 부모교육

- 문제행동 아동·청소년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양육 및 교육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모집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가정에 대한 전문가 파견을 통해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휴우증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 수준임. 무방비한 상태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며, 2년 간의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또래 관계 형성도 되지 못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사업 확대가 매우 시급하지만, 현재 전주시의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통합적 체계 구축 마련이 어려운 상황임. 실제로 독일의 경우 ‘아동·청소년 지원법(KJHG)’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독립행정기구인 ‘청소년청’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의 복지욕구와 사회적 요구 등을 직접 조사하고 통계·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이에 현재 기획조정국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부서를 복지국 산하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아동·청소년 부서를 통합하여, 성인 이전까지의 생애주기가 일관된 체계로 관리·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선 당사자들이 스스로 복지욕구를 전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독일의 경우 ‘청소년의회(Jugendparlament)’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니셔티브(Jugendinitiativen)’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활성화 하고 있음.
- 전주시 역시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어린이 의회를 통해 제안된 아동 관련 정책적 제안이 실제 전주시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이 제한적임.
- 이에 청소년들의 복지욕구 및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청소년 의회 구성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개정을 통해 어린이 의회 구성 조례의 구성 대상을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의회 체험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결정된 정책적 제안이 전주시정에 공식적 안건으로 반영 혹은 논의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선진지 벤치마킹결과 우리시 도입과제

도입 시기별	도입 과제명	내용 (상세하게) ※ 필요하면 사진첨부	시행 국가	추진 부서	비고
즉시	전주시 청소년 의회 구성	청소년 의회 구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혹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복지욕구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도록 함.	독일	여성 가족과	
연차적	아동· 청소년 부서 통합	- 현재 기획조정국 산하로 편제되어 있는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를 복지국 산하로 조직개편 - 추후 아동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간 주요사업 조정과 함께 아동·청소년 통합 부서로 개편	독일	아동 복지과	
고려해볼 사항	독일 민간 복지재단 (디아코니아)와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	디아코니아의 경우 아동·청소년 복지 뿐 아니라 여성, 노인, 장애인, 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아젠다를 독일 전역에 제시하는 영향력이 있는 만큼, 추후에도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복지 선진국의 경험을 습득	독일	복지 환경국	

2. 복지환경위원회

이병하 부의장

전주시의 기부 식품 문화 활성화 및 노인 돌봄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7. 10.(월) ~ 2023. 7. 18.(화)
- 방문국가 : 독일, 체코
- 방문목적
 - 유럽의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정책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돌봄복지 방안 연구
- 작성자 : 복지환경위원회 이 병 하

□ 현 황

- 전주시는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이름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기부식품을 신속히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시 내에 푸드뱅크 1곳, 푸드마켓 1곳으로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낮음.
- 또한, 전주시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외에 주민센터 35곳에 ‘전주사람 온마음 푸드나눔터’를 설치하여 푸드마켓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 기부 활성화와 푸드뱅크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전주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7월 기준 전주시 인구 대비 17%로 이는 2022년 7월 16.1% 보다 0.9%가 증가한 수

치임. 전주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무엇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만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상황임.

- 전주시는 2019년부터 추진한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2년 종료됨으로 2023년 상반기 자체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시민의 삶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무엇보다, 증가하는 고령인구 비율과 비례하여 치매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치매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전주시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과를 두고 있으므로, 치매 당사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예방부터 돌봄에 아우르는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출장 세부내용

-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무료식품 공급처인 Schwalbach Tafel (쉬발바흐 타펠) 방문 및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관의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전주시 푸드뱅크 운영과 무료식품 기부 식품제공사업 활성화에 대해 연구.
- 독일 카를스루에의 karlsruher-stadtmission(노인돌봄기관) 방문 및 담당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독일과 한국의 노인 돌봄 시스템을 공유하고, 전주시 또한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운영 방안에 대해 연구.

- 체코의 Domov PRO Seniory Chodov(코도브 요양원) 방문 및 담당 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체코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공유하고, 전주시 치매 정책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해 연구.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Schwalbach Tafel(쉬발바흐 타펠) 방문 및 대표와의 간담회
 - 쉬발바흐 타펠은 식료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필품을 지역의 기업, 슈퍼마켓,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수급자, 고령자, 저소득 이민 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음.
 - 쉬발바흐 타펠은 300~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급여를 받는 대표 1명과 직원 1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하고 있음. 식품이나 생필품의 기부가 들어오면 자원봉사자들이 선별하여 진열하고 주 1회 이용자들이 타펠에 방문하여 필요한 것을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중임.
 - 생필품이나 식료품 외에 현금 기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바우처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 내 상점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신선식품을 기부받은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빠르게 선별하고 보관 혹은 신선도가 낮은 것들은 농장에 먹이로 보내거나 폐기하며 관리하고 있음.



○ 독일의 karlsruher-stadtmission(노인돌봄기관) 방문 및 담당자 간담회

- 독일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중위연령이 47.4세로 세계 2위 수준임. 이에 노인 돌봄과 관련된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
- 독일 카를스루에에 위치한 karlsruher-stadtmission(노인돌봄기관)은 디아코니아 산하 비영리단체로 주간보호, 단기치료, 입원치료, 24시간 데이케어, 주거 등 복합적인 노인돌봄기관임.
- 60세 이상의 치매 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증상 정도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1인당 5명 정도 담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교대로 각 4인씩 근무하고 있으나, 노인 전문 간호사 등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이 존재함.



○ 프라하의 Domov PRO Seniors Chodov(프라하 코도브 요양원) 방문 및 담당자 간담회

- 프라하의 코도브 요양원은 프라하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거주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증 치매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는 입

소를 제한하고 있음.

- 프라하에 위치하는 13곳의 요양원 중 코도브 요양원이 규모가 가장 크고, 시설 내에 네트아트와 같은 취미활동 공간, 휴게실, 카페, 도서관, 극장, 정원 등의 시설이 구성되어 있으며 입소를 위해 10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있음.
- 무엇보다 기억의방이 별도로 존재함. 이는 과거 젊은 시절 사용했던 가구, 의류, 물품 등으로 구성하여 치매 노인을 위한 공간을 구성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시는 1곳의 푸드뱅크와 1곳의 푸드마켓 운영으로 인해, 다른 동네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35개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전주사람 온마음 푸드 나눔터’를 설치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식품 기부 문화의 한계와 별도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하기 힘든 실정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슈퍼마켓 그리고 시민들이 식품 기부 문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흥미와 재미를 가미한 캠페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전주시는 2023년 5월 기준 요양시설 47개소, 양로시설 1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130개소를 두고 있음. 시설의 유형은 다르지만 각 시설에서 목욕, 일상생활지원, 간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독일의 노인돌봄시설과 같이 한 공간에서 주간보호, 간호, 단기 치료, 입원 치료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음. 무엇보다 독일의 경우 입소시설과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상자가 원하는 기간동안 생활이 가능함. 따라서, 복합적인 노인돌봄 시설의 마련을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새로 시작하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각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 돌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전주시는 치매 환자를 위한 정책을 활성화 하여 치매안심마을 지정, 전주시 공립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원 설립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체코의 코도브 요양원과 같이 단순 거주와 치료의 목적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기억의 방과 같이 과거의 물건과 의류등으로 꾸며진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선진지 벤치마킹결과 우리시 도입과제

도입 시기별	도입 과제명	내용 (상세하게) ※ 필요하면 사진첨부	시행 국가	추진 부서	비고
즉시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마련	독일	생활복지과	
연차적	푸드마켓 확대	현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각 1개소씩 운영중이나 두 곳 모두 완산구에 소재하여, 덕진구에도 푸드마켓을 마련	독일	생활복지과	
	노인 돌봄 협력체계 구축	새로 시작되는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시설, 양로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각 복지시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독일	노인복지과	
고려해볼 사항	치매관련 요양원, 요양병원, 마을에 기억의 공간 마련	전주시 공립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치매안심마을 등 치매 관련하여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 과거의 기억을 추억 할 수 있는 기억의 공간을 필수적으로 마련	체코	노인복지과, 치매안심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통한 자조적 식료품 지원 사업 확대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7. 10.(월) ~ 2023. 7. 18.(화)
- 방문국가 : 독일, 체코
- 방문목적
 - 유럽의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정책사례를 통한 효과적 인 맞춤형 돌봄복지 방안 연구
- 작성자 : 복지환경위원회 채 영 병

□ 현 황

- 전주시는 현재 저소득층에게 기부를 통한 식료품 제공을 위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통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주시 내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이 각각 1곳씩 존재하여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 한편, 전주시는 주민센터에 ‘전주사람 온마음 푸드나눔터’를 설치하여 푸드마켓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푸드마켓과의 규모 등의 차이로 인해 그 기능이 제한적으로 푸드마켓 확대 운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전주시는 2016년 유니세프 인증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아동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전주시의회 역시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주시 보호대상 아동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아동 권위 향상 및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출장 세부내용

-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Schwalbach Tafel(쉬발바흐 타펠/무료 식품공급처)에 방문하여 브리핑 및 시설 라운딩을 통해 독일의 기부문화 및 자조적 성격의 저소득층 대상 식료품 지원 정책에 대해 탐구
- 독일 뷔르템베르크 지역에 위치한 디아코니아 본부에 방문하여 독일의 대표적 복지재단인 디아코니아(Diakonie)의 활동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독일에서의 민간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 탐구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Schwalbach Tafel(쉬발바흐 타펠)

- 쉬발바흐 타펠은 지역의 중·소 기업체 및 슈퍼마켓, 지역 주민들에게서 기부받은 다양한 종류의 일상용품 및 식료품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푸드마켓과 유사하다.
- 독일 전역에 1,000여개의 기구가 있으며 주로 가톨릭 및 개신교, 사회복지 법인 등의 산하로 소속되어 있으며, 본 의원이 방문한 쉬발바흐 타펠의 경우 ‘복음서 가족교육협회’라는 개신교 단체의 산하로 운영되고 있었다.
- 주로 수급자, 고령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이민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약 80% 수준이 기부금으로 충당되며, 20% 수준은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Diakoniae Warttemberg(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 디아코니아는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개신교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독일 전역에 약 5천여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약 60만 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다.
- 우리가 방문한 Diakoniae Warttemberg(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는 디아코니아 재단의 본부로서, 독일 뷔르템베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 이곳에서는 1,400여 개의 복지기관을 산하에 두고 약 5만여 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27만여 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재단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전주시 역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독일은 자원봉사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어, 자원봉사에 따른 별도의 혜택이 없음에도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기부 문화 역시 사회적으로 매우 확산되어 있어 기부물품 및 기부금을 통해 기관이 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에 의한 기부 뿐 아니라 소규모 슈퍼마켓에서도 판매가 되지 않은 유제품 및 과채류 등을 수시로 기부하고 있어, 관련하여 전주시의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우리나라 역시 시민단체 등을 통해 NPO 활동이 과거에 비하여 매우 활성화되었지만 정부와 NPO와의 협업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우리사회의 경우 복지재단과 같은 NPO들이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전달하고 복지체계를 이끌어가기 보다,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에서 단순한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디아코니아와 같이 많은 민간 복지재단 혹은 단체들은 단순히 서비스 전달자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복지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전주시 역시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복지재단 및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지 벤치마킹결과 우리시 도입과제

도입 시기별	도입 과제명	내용 (상세하게) ※ 필요하면 사진첨부	시행 국가	추진 부서	비고
즉시	기부문화 활성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복지재단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마련	독일	생활 복지과	
연차적	민간 복지재단과의 협력 강화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과 민간 복지재단 및 복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주시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이를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독일	생활 복지과	
고려해볼 사항	푸드마켓 확대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푸드나눔터를 푸드마켓과 통합 및 푸드마켓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독일	생활 복지과	

지역 실정에 맞는 노인돌봄 정책은 재정 이관 및 운영 자율화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7. 10.(월) ~ 2023. 7. 18.(화)
- 방문국가 : 독일 · 체코
- 방문목적
 - 노인, 아동, 장애인등 돌봄 취약계층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구축과 운영 정책을 모색을 위한 견학
- 작성자 : 복지환경위원회 최 지 은

□ 현 황

- 2022년 12월말 기준 전주시 인구 651,495명중 6%에 해당하는 26,750세대 40,227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전 북 수급자 128,522명 대비 31.2%, 전국 수급자 2,451,458명 대비 1.6% 해당함.
- 또한 18세 미만 아동은 102,696명으로 15.7%에 해당하고,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08,520명으로 16.8%에 해당하며, 이중 아동, 노인, 여성등은 경제 활동의 기회나 여건이 적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함.

□ 출장 세부내용

- Schwalbach Tafel(무료식품공급처)는 우리나라의 푸드마켓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고령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이민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식료품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해당 기관에 기부된 물품의 종류와 상태들을 살펴본 후, 운영재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질의 응답 등이 이어짐.
- 대표자 1명 및 행정직원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 중 기부물품 및 기부금이 80% 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은 강제적인 기부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음.



- Stifung Waisenhaus(프랑크푸르트 고아원 재단)은 다양한 문제(경제적 어려움, 정신질환, 사회부적응 등)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로부터 현재 4개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임.
- 아동,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수 없었지만, “독일 내 현재 고아는 없다”라는 말에서 얼마나 촘촘한 정책으로 그들을 보호하는지를 엿볼 수 있음.
- Stadt Mission(기독교 노인 요양 기관)는 디아코니아(기독교 복지재단) 산하 노인 요양 기관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이외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하여 시설 및 가정 내 파견을 통한 간병

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간호 전문가 양성 등을 하고 있음.



- Diakoniae Warttemberg(디아코니아 뉘르템베르크 본부)는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실업자, 노숙자, 빈곤층, 약물중독, 이민자, 난민 등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7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디아코니아 뉘르템베르크에 의해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음.
- 디아코니아의 경우 민간 복지재단으로서 정부(주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단순히 현장에서의 실천(사업, 민간위탁 등)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영역에서 관련 정책/제도적 기초를 이끌어가고, 국가 및 주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보조금이 아닌 자체 재정으로 사업들을 독립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함에 기인함.



○ kinder Und Jugendhilfe (디아코니아 산하 아동·청소년 기관)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양육과 교육 분야에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어려운 삶의 상황에 처한 부모,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학대, 폭력, 부모의 정신질환 등 가정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4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짐.

○ Domov Pro Seniory Chodov(코도브 요양원)은 체코 노인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자립능력 저하, 노령, 사회적인 이유로 더 이상 가정에서 머물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주거서비스를 통하여 자연환경과 최대한 유사한 돌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하는 만큼, 최대한의 독자적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공용거실 및 식당, 공용 도서관, 극장, 예배실 등 상호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적절하게 설계, 배치되어 있었음.

- 특히, 치매노인의 추억과 향수를 상기 할 수 있게 조성된 추억의 방을 돌아볼 때는 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었으며, 전주시에서 추진 중

인 치매안심마을이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도입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전주시는 대부분의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의 재정은 대부분 보조금이 차지할 만큼, 보조금의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탁자가 깊이 있고, 특색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업 지속성 또한 한계가 있음.
 - 이에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 전주시는 마을구성원들의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고, 일반 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인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의 상주 및 체계적인 관리 system의 부재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전주시의 경우 아동생활시설 입소 대상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학대·폭력 등으로 원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권 밖, 아동·청소년의 경우, 거주 등의 어려움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동원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모든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함.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 및 관에서 복지정책의 기초를 주도하기에, 민간영역의 역할은 단순 위탁운영 및 사업 수행의 역할로 국한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복지 수요를 원하는 대상이 다양해지고, 복지욕구 역시 다변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다양화 및 다각화가 필요하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곳이 현장이기에, 단순한 관리·감독이 아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정책·제도적 제안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재정자립도를 높여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설 간 합병 등을 통한, 조합, 법인화를 통한 규모화 내실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건립예정 중인 공공형 치매안심요양병원은 현재 철길, 과수원 등이 입지하고 있어,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산책이나 야외활동에 아늑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건물내부는 독립적인 공간과 공유공간을 적절하게 조성하고, 체코의 추억의 방과 유사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스티그마효과가 독일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거하여 하나의 마을이 구성되어 질 때부터 다양한 주거형태가 함께 구성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로 묶여지도록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음.

선진지 벤치마킹결과 우리시 도입과제

도입 시기별	도입 과제명	내용 (상세하게) ※ 필요하면 사진첨부	시행 국가	추진 부서	비고
즉시	공공형 노인안심요양 병원건립	건립예정중인 공공형 노인안심요양원의 설계시 독립공간 확보, 공동공간 확보 뿐만아니라 야외활동이 편하고 자유로이 할수 있도록 설계		노인 복지과	
즉시	아동, 청소년 돌봄시설 (그룹홈)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데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도의 확대가 필요		아동 복지과	
연차적	거점형 돌봄시설 구축	복지시설들의 통폐합 및 거점형 돌봄시설 구축 (조합,법인등) 및 민간단체 육성	독일	노인,아동 복지과	
	one-stop 치매안심마을	안심마을 지정후 교육, 전문인력(상담,의료)이 상주 할 수 있는 거점시설 설치 및 확대		노인 복지과	
고려해볼 사항	유료 실버타운 조성 사업	노령화로 인한 요양시설 및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필요성은 절실하다. 하지만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기업에 의한 유료형 실버타운 유치전략 수립		노인 복지과	

3. 행정위원회

이보순 의원

생애주기 별 맞춤형 복지의 필요성

□ 출장개요

- 일 시 : 2023. 7. 10.(월) ~ 2023. 7. 18.(화)
- 방문국가 : 독일, 체코
- 방문목적
 - 유럽의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정책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돌봄복지 방안 연구
- 작성자 : 행정위원회 이 보 순

□ 현 황

- 전주시의 아동 및 장애, 노인돌봄정책은 전국적 추세에 비하여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것은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상징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립활동을 위해 시범적인 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돌봄은 전주시예산의 34%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중 그 비중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 출장 세부내용

- 독일의 선진적인 복지정책을 탐방하고 우리 시스템에 맞게 도입하거나 우리의 시스템을 재조명해 보는 것으로 먼저 무료식품나눔처의 방문을 시작으로 사회봉사단체와 노인간호서비스, 아동·청소년복지의 비영리단체, 요양원 순으로 다녀왔다.

○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고아원재단 와이젠하우스(Waisenhaus)

- 법인재단 Stiftung는 1679년 설립되어 고아를 보호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변경되어 현재는 부모가 없는 아동의 위탁, 문제가 있는 아동을 상담과 위탁가정의 응급적 지원을 수행한다. 재정은 후원 등이 가능한 기관으로 보조금을 받고 시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다.
- 와이젠하우스의 업무는 자체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옮기는 곳으로 전문인이 상주해있고, 청소년청에서 위탁을 받아 사회복지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며, 형태는 청소년과 그 가정을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한부모가정 아동이나, 소득이 낮은 아동 등이 이용할 수 있다.
- 의뢰를 할 때는 자리가 비었을 경우 학교부적응(지진아)아동을 최종적 판단을 통하여 입소 가능하며 과외수업과 여가, 취미 등을 지원하고 용돈(50유로)도 준다. 이들은 독실을 사용하며 친구방문이 자유롭고 방학 중에는 캠핑이나 담력활동, 놀이동산 등 일상적 활동을 한다. 마약이나 심한 편식 등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된다.
- 이곳을 이용하는 아동은 6개월마다 부모와 청소년청, 기관이 만나 자격의 판정을 하는데 아동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지원과 부모와의 만남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향상 시켜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은 가정회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독일의 청소년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에게 학대나 폭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위해서는 강제성을 띠고 개입하고 있다.
- 이 기관에서는 Gruppe(그룹)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생활그룹과

이용그룹으로 나누며 기준은 아동의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1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그룹에 해당되며, 건물의 1층에 거주 △ 8세에서 16세 아동·청소년이 대상 △ 스스로 저녁에 취침을 하며, 독자적 그룹으로 시장을 보고 간단한 요리를 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
2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그룹에 해당되며, 건물의 2층에 거주 △ 현재 9명의 청소년이 이용 △ 가정에서 관리가 어렵고,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미 부모문제를 겪고 있는 그룹
3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그룹에 해당되며, 건물의 3층에 거주 △ 5명의 지도자가 24시간 순회근무 △ 직접 음식을 해 먹고 청소 등을 따로 함
4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그룹에 해당되며, 건물의 4층에 거주 △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우울증, 분열증 등) △ 치료사 1명 및 사회복지사 7명 상주 △ 치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독립적 생활을 목표로 치료 및 훈련 서비스 제공



○ 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디아코니아(Diakonisches Werk)

독일은 기독교를 국교를 두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이 기관은 기독교적인 섬김과 봉사의 철학을 중심에 두고 매주 월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운영되며 건물의 중심이 유리로 되어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 또한 이 기관의 가치를 사람과의 교류와 관계, 땅에 중심을 두고 물질과 정신적 어려움, 병, 장애, 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등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을 상담하고 연결하는 역할로, 1200개의 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상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의 십자가는 토막난 대나무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처 입고 부서지기 쉬운 사람의 인생을 뜻하는 것으로 완벽하지 않는 삶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부서질 수 있으며 그 성과보다 사람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디아코니아의 사명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이해했다.
- 이 기관의 모토는 아래와 같으며 이 기관에서는 복지의 업무, 사람을 거미줄처럼 연결된 망으로 연결하고 있고 모든 복지의 총체적 네트워크의 체계였다.

1. 사람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2. 업무를 통해 정확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할하고, 동반·협조하며 지원해 주는 역할



- 독일은 이민국가라고 불려질 만큼 난민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독일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있다. 난민들의 장기거주에 관한 것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지원의 교회를 열고 마을센터에 집(아파트)을 지음으로서 정

착에 대한 도움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상승한 식품, 난방, 집세 등 저소득, 한부모, 노인빈곤, 남녀평등문제의 차등을 막고 장기실업으로 발생하는 빈곤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어느 정도 역할수행을 하고 있다.

- 인구구조의 분포를 보면 66세 이상 인구가 독일 전체인구의 1/5 이상으로 노동가능 연령을 20세~66세로 보았으며 계속적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 가족섬김이 줄어들면서 정부에서는 노인 간병 문제를 55세 이상 노인인구 1/3을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다양한 형태로 효율적인 케어형태를 펼치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해외에서 전문인력을 수급하기도 하고 난민의 노동력을 활용하기도 하나 소규모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

○ 디아코니아의 다른 기관으로 슈튜트가르트 eva공익기관인 비영리단체를 방문하였다. 이곳의 설립 배경에는 네카강 옆 도시(뷔텐베르그)가 산업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난한 아이들이 도시로 밀리고 이동하면서 빈곤이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산업화로 인한 부모 맞벌이 문제로 아이들의 케어문제는 아이돌봄을 생각하게 되면서 킨더가든과 같은곳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 킨더가든에서는 취학 전.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되면서 돈이 많은 회사에 후원을 요청하게 된다. 독일은 사회의 부가 골고루 가져야 한다는 재분배 정신에 의해 정부에서는 학교와 경찰, 사회복지국가 시스템 등 사회전체를 관리한다. 킨더가든에는 국가에는 10%~15%만을 지원하고 그 외는 자체적으로 수급해야 된다.

- 독일문화는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기부는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이므로 불규칙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급여의 11%를 근로세로 내며 종교세도 납부하면서 그때 그때 재정을 수급하기도 한다. 이들은 12,000명이상이 기부를 하며, 시민의 협조가 기초적인 바탕이 되어있다. 기부단체가 학대 문제 또다른 스캔들의 문제가 생길때는 기부중단의 사태가 발생되므로 생활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
 - 또한 독일은 낙태 금지국가로 임신에서부터 사망까지 돌보아 주지만 이는 상담을 통하여 가능하고 교회나 eva의 상담제출기관에서의 확인시에서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인정해 준다.
 - 치매가족 상담 초기에는 집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자원봉사를 전문인 동조하에 찾아가거나 보내준다. 이후 주간보호 이용 시 다양하게 지원하고 시설입소시 그들의 상황에 맞는 알콜, 마약 등 정신질환 입소경로에 맞게 지원한다.
 - 이용할 사람은 많으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 시에서 중독을 인지하도록 상담 치료필요자들이 입소하여 재활치료로 수행하도록 돕고 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준다. 이곳에서는 자기주치의 제도가 있어 병력이 요양원에 넘겨져 요양원에서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 노인간호서비스는 찾아가는 노인서비스 제도로 24시간을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지원등급에 따라 자부담하는 비율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등급이 높을수록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이용하는 금액은 1인이 5,000유로인데 2,000유로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보험금액은 일정함)하고 3,000유로는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

재산이 없는 경우 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있다.

- 그러나 2023~2025년사이를 보면 점점 자기부담율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사회문제 정치적인 문제해결을 필요로 하고, 현재는 본인 부담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공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즉 부모님이 모든 것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셨지만 현재는 기관에서 모시는 현상으로 변모했는데 이는 문명의 발전으로 생긴 현상이다.
- 이 기관에서는 홈케어라고 집으로 찾아가서 노인을 서비스하는 방법과 둘째는 낮에 이용하는 서비스로 주간보호 형태의 이용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요양원 인근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신속히 지원을 받는 형태가 있다. 네 번째는 주거생활이 함께 이루어져 모든 것을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 이 기관은 노인의 상태에 따라 건물 동을 달리하여 이용하며 노인 1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어 가정에서 사용하던 개인물품을 가져와 사용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한다.
- 이들의 운동은 동행하면서 어린이 산책하듯이 함께 진행하고 있고, 공용공간인 플로어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 또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샐러드 및 샌드위치 정도는 해먹을 수 있게 되었다.
- 젊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고 출산휴가 등 다양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고 가정에서의 양육 및 융통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끼도록 노력

을 많이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은 타국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값싼 인력이 아닌 동등한 수준의 급여 실행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어려움은 있다. 한 예로 한국인이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전문적인 학교를 마치고 자격을 취득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데, 미팅 시에 나와 소통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반가웠다.

- 이 기관은 노인들이 어디에서 왔든 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모델이며 노인 빈곤이 없어지도록 자부담을 줄여야 하고 차후에는 간병시에 로봇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 하일브론지역의 청소년복지센터(Wohngruppe Eppingen)는 디아코니아 산하 기관중 하나인 이곳(그룹홈)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으로 숙식이 가능하다. 이 기관은 1960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은 하루 일상을 계획하고 시간표를 작성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기록하며 체크 한다.

- 방과 후에는 각자 역할분담을 수행하며 리더가 생활과 요리를 지도하며 대화하기도 한다. 이들의 수면시간은 나이에 따라 조정을 하며 이들의 역할은 재미있게 수행한다. 12세~18세 청소년들이 이용하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제성이 없다.

- 이곳에 있는 청소년들은 운명적으로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문제행동 및 경제적 어려움, 학교부적응 아이들도 있다. 이들이 조금 잘못하여도 사랑이라는 줄이

있어 용서를 받고 규정을 준수하면 관대하나 규정을 어기면 퇴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희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 이들이 이용하는 집에는 7명이 살고 있으며 각자 독방을 사용하고 24시간 케어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가정에서의 아픔과 우울, sns를 통한 영향 등으로 심리적 아픔을 겪는 아동들이 안정을 찾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교육적 책임과 보호를 받고 있다.
- 이곳의 재정은 시청소년부에서 지원을 해주며 부적응아동이 적응하도록 마지막까지 청소년청과 병행하고 있다. 10만 도시의 행정 안에 이러한 기관은 27개 그룹이 존재하고 있다. 1팀의 가정 단위에 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정 안에서 청소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 각 집의 나이는 1살에서부터 18살까지 폭이 넓으며 가정마다 문제는 다 다르다. 각 가정마다 마약, 폭력, 부적응, 청소년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가정에서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으며 믿고 해결하도록 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되어 모든 사항을 얘기하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어려움이 큰 청소년들은 청소년청에서 직접 관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한다.
- 철도역사를 활용한 사무실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인상이 남았다. 이곳의 아이들은 일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숙제를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 코도브요양원이 마지막 기관방문으로 요양원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실버타운의 개념이 컸다. 중·상위층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용하는 곳으로 큰 정원을 중심으로 건물이 삼면으로 둘러싸고 있다.

- 노인들이 혼자 남았을 때 건물을 팔아서 돈을 맡기고 여기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놓았다가 이곳에서 이용하기도 한다.
- 여기는 노인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있었고 독서실도 있었으며 치매노인들을 위한 추억을 돌이킬 수 있는 추억방도 있었다. 예전 젊었을 때 사용했던 의류나 물품을 놓아 추억을 상기하며 치매를 치료해가는 방식이 인상에 남았으며 물리치료를 받는 방식도 따로 있었다. 어쩌면 전주에 필요한 기관이 이러한 기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다행히도 전주는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여 마을 전체가 추억을 소환해가는 정책을 펴고있는 것이 생각되어졌다.



□ 연구과제 및 주요현황(상황)

- 청소년청의 분리문제

- 독일은 청소년청이 단독으로 분리되어있어 행정절차를 청소년청에서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모든 청소년들을 끈을 놓지않고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청소년들의 세대는 청년과 아동, 노인 그리고 여성에 문히며 청소년의 중요한 시기는 여성가족과의 일부분에서만 존재한다. 전주의 행정에서 아동복지과, 청년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는 있지만 청소년복지과는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총괄하여 콘트를 타워 역할을 할수 있는 청소년청이 필요하다. 청소년청의 분리는 국내 경제와 인구분포에서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할 것이다.

○ 인구정책 구조에 맞는 노인복지의 고령화정책 수립

- 급격한 산업화로 경제부를 이룬 국내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대비를 못한채 노후를 맞다보니 정부에서 현금성 우선정책이 펼쳐졌다. 그렇지만 국내인구는 생산성인구보다 소비성 복지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의 재분배가 필요하며 복지의 생산성을 생각한다면 청소년과 아동, 청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안정적인 인구정책을 불러올것이며 장기적안목에서 노인복지의 대책이 될 것이다. 고령화정책을 위한 보험제도(실버타운)개념의 정부의 대안과, 개인들의 노후개념의 적금지원제도가 필요할듯하다. 다행이도 전주는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하면서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유도해가는 정책은 우수하다고 볼 것이다. 결국 노인복지는 보건의료를 빼고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 통합돌봄의 시스템으로 가정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 활용방안 및 도입과제

- 복지는 선진지견학등으로 많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부분 부분에서 상당한 제도로 서비스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서로 교차하여 연결할 수 있는 망이 필요하다고 본다.
- 즉 디아코니아에서 가치로 삼고 실천하는 인간존엄과 인간의 부족함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인 것이다. 그것은 노인복지도 해당되고, 청소년복지도 해당되며, 아동복지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통합돌봄이며 이를 인문학적 철학을 지니고 내실 있게 실천해가는 탄탄한 알맹이를 만든 것이다. 그 중심이 필요한 것이다.
- 흔히 행정복지에서 가장 간과하는 부분은 효과성이다. 그러나 현장복지에서는 그 효과성을 증명하는데는 그 시기나 계층, 세대가 지나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복지에서는 효과성을 보며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복지서비스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청소년이나 청년 아동복지에서는 더욱더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다.

선진지 벤치마킹결과 우리시 도입과제

도입 시기별	도입 과제명	내용 (상세하게) ※ 필요하면 사진첨부	시행 국가	추진 부서	비고
즉시	통합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들의 복지전달 체계(청소년지원과) - 노인복지에서 보건의료 투입(건강예방 및 관리) 	독일	아동 복지과	
연차적	청소년청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중심의 사회복지 입지강화 - 청소년들의 그룹홈 및 위탁가정의 확대 - 물리적빈곤 뿐만아니라 정신적빈곤의 탈피를 위한 제도 	독일	아동 복지과	
	고령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중심의 노인 고령화정책 제도 도입 - 노인들만을 모아놓는 것이 아닌 세대가 어울려 지내는 다세대(아이-청소년-청장년)중심의 인간속에서 자연치유 제도 	체코	노인 복지과	
고려해볼 사항	실버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려정책(스스로 대책강구) - 국가차원의 정책필요 	체코	노인 복지과	